

## 마주보기

### 여러분의 이야기로 예술을 완성해 주세요!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

기부로 자신의 이야기가 예술작품이 된다면 어떨까. 칠채된 문화예술을 응원하고 예술작품에도 참여해볼 수 있는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모금 중이다. 참여방법은 간단하다.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은 총 3가지이며 그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만 원을 기부하면 아래 작품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10월 마지막 주 탐동 시민농장과 2021년 수원연극축제에서 공개되며, 여러분이 기부한 기금은 2021년 수원연극축제에서 시민참여 작품의 재설치 및 공간 조성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지쳐버린 문화예술계에 힘을 보태어 본다면 수원외의 여러 공간들이 더욱 따뜻하게 채워질 것이다.

※ 기업은행 168-026466-01-926



이수민 작가

#### 작품1 (곰 : 희망 : 빛) 한유진 작가

당신이 꿈꾸는 미래, 희망, 소망 등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내주세요! 당신의 그림이 인두화로 변화되어 모자이크 벽화로 전시

#### 작품2 (1/비상행동) 윤수연 작가

위기를 멈추기 위한 '소비를 줄이는 일상의 실천' 나만의 비스비를 공유해 주세요! 오래 쓰고 다시 쓰는 물건 사진 관련 이야기가 작품으로 변신

#### 작품3 (다시 예술로 출발하다) 천지수 작가

삭막해진 일상을 예술로 치유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내주세요! 사진 또는 영상이 예술로 회복되어 표현

문의 문화예술부 031 290 3533

## 살기 말고 인간답게

백창현 기자  
중부일보

시인 김광규는 '생각의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시인은 오로지 시만을 생각하고

경제인은 오로지 경제만을 생각한다던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시와 경제의 사이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만 휴지와 지폐

종이 두 장만 남을 뿐이다

메세나(Mecena)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한 이 글귀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 메세나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초기 아우구스투스 치세에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호라티우스나 베르길리우스 등의 시인들을 지원했던 가이우스 클리나우스 마이케나스(Gaius Cl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따왔다. 마이케나스의 지원은 역사에 수많은 메세나를 낳았고, 가장 유명한 메세나 사례는 르네상스의 원조가 된 피렌체 가문의 일화들이다. 현대의 메세나는 그 뜻을 잃고 화석빛으로 버려졌다. 사람들의 목적이 '인간답게 살기'에서 인간답게 가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저명 지휘자 A의 일화다. 당시 A는 국내 10대 재벌 기업의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 A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에 운영비 협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는 한국 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완곡히 거절했다. A는 그때 그 대표의 입으로 '한국에서는 4대 기업 안에 들지 않으면 후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상당한 절망에 빠졌다고 술회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는 일화기도 하다. '살기'에 비하면 우리는 '인간답게'를 포기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이 아마 대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둔전(屯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아주 어울린다. 둔전은 국가에서 재정 확보 등을 목표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땅을 경작하는 제도로 말 그대로 땅을 나눠주고 그 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국가 계획이다. 둔전을 철학적으로 접근해보자면, 국가가 국민을 인격체가 아니라 자원이자 숫자로만 보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은 국력의 성장 뿐이고 그것이 군사력이면, 인구 둔지(屯田)에 근간이 되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둔전이다.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도 할 수 있다. 고대 시대 인격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던 시기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둔전이 현대에도 실제 이뤄지는 곳이 있다.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둔전의 한 종류인 군둔을 전 국가단위로 실행하고 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고달프기 때문이다. 모차르트는 죽음 직전까지 빈곤과 병마와 싸워야 했다. 혹자는 그가 이런 극한의 상황에 처할았기 때문에 전설적인 곡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된 후원자를 만나 30년을 더 살았다면 음악사가 100년을 더 발전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금수나 다름없다. 그저 '살기'를 할 뿐이라면 신발은 신을 필요가 없고, 굵은 입을 필요도 없으며 귀는 들을 필요가 없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일들을 위해 나설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 씩티움 소식

### 씩 Suwon Sightseeing Art Culture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관광의 '씩ssac'을 띄우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문화예술 기부 회원제도입니다.

### 씩ssac티움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화예술 정기 기부를 통해 씩ssac티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창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씩티움 회원이 되시면 수원문화재단 <인인화락> 정기 배송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씩ssac티움 회원 예우사항

주체	구분	후원액	특별예우	기본예우
개인	씨앗 회원 (연간회원)	월 3,000원 이상 연 3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카드 발송</li> <li>기부금 영수증 발행</li> <li>월간 뉴스레터 발송</li> <li>(인인화락) 명단 게재</li> <li>(인인화락) 발송</li> </ul>
	물 회원 (연간회원)	월 10,000원 이상 연 100,000원 이상	연1회 문화꾸러미 발송	
기업	햇살 회원	1,000,000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인화락) 광고 게재</li> <li>기획공연 티켓 제공</li> <li>기부자 네이밍 지정</li> <li>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문화행사 기획</li> </ul>	

★ 문화꾸러미란? 재단에서 기획하는 공연 티켓, 제작하는 기념품 등이 들어 있는 선물상자입니다.

### 기부, 이렇게 참여합니다

ARS기부 060 700 1199(통화당 2,000원)  
온라인기부 홈페이지 하단 씩ssac 배너 클릭  
현금기부 기업은행 168-020092-446 (제수원문화재단)

### 문의 및 신청하기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제수원문화재단)  
전화 031 290 3516  
홈페이지 give.swcl.or.kr

### 수원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씩티움 회원(2020. 9. 30. 기준)

#### 햇살 회원

IBK기업은행(동수원지점) ㈜신한은행  
에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수원이만과(이주현)  
서문동단체장협의회 ㈜KT&G(경기본부)

#### 물 회원

㈜월드프라이밍 강남철 권수정 김남훈 김대규 김민규 김민주  
김서연 김승국 김유리 김중수 김지현 김호기 다울정보 박두현  
박래현 박수진 방재영 배영애 신혜숙 안준선 양지석 윤봉기  
이달호 이정민 이정원 임금자 전호정 정근호 조명희 주용수  
채희락 홍순희 황연주

#### 씨앗 회원

강태석 고서진 권오경 김연은 김종찬 김창서 김현익 김현주  
박경홍 박병규 박삼미 박원열 양태인 임우용 유호준 윤승기  
이경남 이규영 이선욱 이순윤 이진석 이효진 임선화 전항이  
정경선 정서영 조성민 차광수 최명옥 최진봉 최화섭 하진주  
한수민 한정희 황남숙 황승연 회화침행(수원문화관광해설사동아리)



손 안에 문화달력

#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OCTOBER

# 10

2020  
수원 문화재 야행

달 밝은 밤 살며시 떠나는, 2020 수원 문화재 야행  
수원화성의 역사적 숭골과 기억을 따라 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화성행궁 일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0.23(금)~10.25(일)  
장소 화성행궁 일원  
문의 화성컨텐츠팀 031 290 3574



※ 월간 뉴스레터에 소개된 공연, 전시, 행사, 체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 연기될 수 있습니다.

